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서양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세계에 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김주희

동 · 서양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세계에 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김주희

인 준 서

김주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동·서양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세계에 대하여 본인 작품과 비교하면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유토피아 즉 이상세계는 현재까지도 예술가들에게는 창작동기의 원천을 주고 있으며, 이에 본인 또한 한 시대의 예술가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이상향의 세계를 작업하게 되었다.

예술표현의 본질은 작가 자신의 감정과 내적 체험을 통하여 현실과 사회를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삭막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인간들이 갈망하고 꿈꾸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파라다이스라는 유토피아적 이상세계를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여행이라는 것에서 시작된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빛 바다에 누워 잠시나마 느낀 자유와 행복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곳에서 느낀 감정과 본인만의 이상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한 작업을 시작하며, 2012년 석사 청구 전 때 선보인 작품을 중심으로 동·서양에서 나타난 유토피아적 세계와 한 시대에 이상향이라는 주제로 표현된 작품들을 연구하여 본 논문에 제시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전개방식은 유토피아의 의미와 개념을 이론적으로 밝히기 위해 우선 문헌조사와 작품분석을 통하여 동·서양이 가지고 있는 이상향의 개념들과 차이를 분석하고자한다.

동양에서는 중국 동진시대의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의 이상세계와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

圖)에서 나타난 동양적 유토피아, 서양에서는 서양의 목가적 이상향인 아르카디아, 단테 알리기에(Dante Alighieri·1265~1321)의 이상세계 여행기 중심으로 연구하고, 이 소재들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 작품의 중심에 등장하는 이미지에 분석하고 그 표현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 론	1
II. 본론	3
1. 동양의 유토피아적 이상향	3
1) 이론적 배경	3
2) 동양 회화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이상향	6
①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에 나타난 유토피아	6
② 안중식(安中植)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12
③ 변관식(卞寬植)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15
2. 서양의 유토피아적 이상향	19
1) 이론적 배경	19
2) 서양 회화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이상향	23
① Hieronymus Bosch 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23
② Nicolas Poussin 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29
③ Tiziano Vecellio 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33
④ Dante Alighieri 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36
3. 본인 작품분석	42
III. 결 론	51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125 × 260cm	43
【작품 2】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91 × 116.7cm	44
【작품 3】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50 × 170cm	45
【작품 4】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50 × 170cm	45
【작품 5】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30 × 160cm	46
【작품 6】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30 × 160cm	46
【작품 7】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100 × 80.3cm	48
【작품 8】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116.7 × 91cm	48
【작품 9】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30 × 100cm	49
【작품 10】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150 × 55cm	50

I. 서론

유토피아란 더 나은 삶 혹은 이상적인 삶에 대한 꿈이 실현되는 곳, 인간들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현실에는 없는 것을 뜻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우리는 긴장과 경쟁을 하며 살고 있고 주어진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머무르지 않으며 항상 개조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해 온 인간들로서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이 향상되고 겉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현대사회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현대사회라는 영역 속에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것이다. 인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살고 있는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 행복해 질 수 있는 곳에 대해 상상하고 갈망하며 실현 불가능한 이상향도 그려보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개인들의 삶이 뜻대로 되기보다는 많은 좌절을 안겨줄 때,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더욱 절실해 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점점 더 불만을 느끼게 되며, 행복만이 가득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곳 또는 나를 만족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가상공간으로 한번쯤은 훌연히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어떤 곳일까?' 본인의 작품에 보여 지는 이미지는 유토피아의 참된 의미나 유토피아의 삶

도 실제로는 이루지 못하지만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는 인간의 삶이 좀 더 편하고 로봇과 컴퓨터가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공상 과학 영화 속의 발전된 세상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유토피아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오는 것 보다는 정신적인 여유와 풍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찾아보고 연구자의 작품에 나타난 성격을 간략하게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을 통해 이상세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동·서양의 이상향의 개념을 기술하고 유토피아적 요소들을 살펴보며, 동양의 이상세계에 대한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와 조선시대 몽유도원도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상향을 표현한 작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서양에서 보여 지는 이상세계 토마스 모어의 이론적 배경과 히에로니무스 보스, 니콜라 푸생, 티치아노 베첼리오 에서 보여 지는 이상향의 개념들을 분석하였으며, 단테 알리기에 신곡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사상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동·서양의 이상향의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자의 작품에 드러난 내용과 특징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려고 한다.

Ⅱ. 본 론

1. 동양의 유토피아적 이상향

1) 이론적 배경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곧 이상향을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한다. 유토피아란 좋은 곳이긴 하지만 사실상 아무 곳에도 없는 곳이란 의미이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유토피아를 흔히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 하였다. 무릉도원(武陵桃源)이란 말은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비롯된 말로서 평화롭고 조용한 이상향이란 뜻이다. '도원경(桃源境)'¹⁾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인간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로 여겨져 왔다.

도연명은 동진 말에 이름을 잠(潛)으로 개명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심양(尋陽)의 자상(紫桑)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양자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파양 호에 임해있고 북쪽으로는 여산을 바라보는 풍광이 수려한 곳이다. 그의 증조부는 진(晉)의 명장인 도간이며, 외조부는 일대의 풍류 인물이었던 멩가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의 부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고, 그의 직위가 낮았던 것으로 보아 명문의 후예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²⁾

그가 살았던 위진 시대로부터 남북조(南北朝, 316~581) 시대는 황

1) 이상규. 무릉도원과 유토피아. 「목회와 신학」. Vol.182. pp.200. 2004.

2) 이수용, 김정일. 『중국문학사』. 대한교과서. 1994. pp.147.

제와 왕조의 쟁탈과 살육, 정치적 투쟁이 빈번히 일어났으며, 당시 일류급에 속하는 저명한 시인, 작가, 철학자들은 모두 살해당하거나 처형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에는 인생에 대한 개탄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으며, 그것이 작품의 무게를 훨씬 침중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도연명은 굳은 결심으로 상층사회의 정치로부터 물러나 정치적 위안을 농촌에서 음주 독서 시작(詩作)에 기탁하였으며, 그런 까닭에 그에게는 후기 봉건사회사대부들이 인생전반에 대하여 느끼던 공허하고 막막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오히려 반대로 인생, 생활, 사회에 대한 매우 강한 흥미를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연명이 취했던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띤 현실도피였다. 그리고 이것은 도연명만이 실천할 수 있는 도피였다'.³⁾

도연명의 이상향은 전원적 산간생활을 흠모하여 그곳에서의 생활을 신선계(神仙界)의 생활로 승화하여,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향은 당시 지배층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자극적인 소재였다. 그러나 그가 지향하는 이상향의 세계는 다분히 신선적인 모습만이 아닌, 전원생활 속에서도 의(義)로운 생활을 목표로 삶을 꾸려가는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작품 「도화원시(桃花源詩)」에서 이러한 도화원의 이상향을 기술하고 있다.⁴⁾

동양에서 말하는 이상 공간의 유형에는 모든 것이 천부적으로 충족된 신화적 이상공간인 '산해경형', 인위적 권력을 배제하여 현실 속에 이룬 이상공간인 '무릉도원형', 도교적 이상공간이되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신국(神國)인 '삼신산형', 현실 속에 이룩한 유교적 이상공간인 '대동사회형' 등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⁵⁾ 이러한 유형들 중

3) 李澤厚, 김형중 譯

4) 이성호 역 『도연명 전집』, 문자향, 2001. pp.177-179.

5) 정제서 (2002)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p.252-254

동양의 유토피아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노자의 사상이 반영된 무릉도원형에 대해 말하자면 '무릉도원형'은 도교적 낙원관에서 유래한 이상세계의 유형이다.

그 원형은 노자(老子)에서 찾을 수 있는데 노자(老子)는 소국과민(小國寡民)에서 재물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것, 나라의 평화와 전쟁을 반대하는 것, 인간들의 욕망 절제와 자족, 소박하고 전원적인 생활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노자(老子)의 이상세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존중사상인 것이다.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배와 수레, 병기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국가 간의 왕래가 없으므로 전쟁과 약탈이 없는 이상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노자(老子)의 이상국가인 소국과민(小國寡民)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자족하는 인간들의 삶을 이상세계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처럼 이상세계의 표현은 회화에 자주 등장하며, 현실과 이상세계를 공존할 수 있는 매개체를 찾으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서양에서 보여지고 있는 많은 회화 가운데 동양에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그 시초로 인하여 변화를 거치며 전개된 소정 변관식, 심전 안중식의 도원도, 서양에서는 동양의 무릉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카디아(Arcadia 낙원국)와 연관성이 있는 히에로니무스 보스, 니콜라 푸생, 티치아노 베첼리오에 나타난 이상세계의 개념들을 합일시켜 봄으로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2) 동양 회화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이상향

①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에 나타난 유토피아

안평대군의 <도화원기桃花源記>는 현실세계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보는 이상향으로서의 측면과 현실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도가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화원기의 영향으로 같은 정신적 맥락을 지닌 안평대군의 기문이 쓰여 지고, 안견의 도원도가 창안 되었다.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安平大君) 이 서른 살 되던 세종29년 (1447) 음력 4월 20일 꿈속에서 본 도원(桃源)의 모습을 안견에게 일러주고 그리게 한 것이다. 도원은 진(晉)나라 태원(太元) 연간(376~696)에 무릉땅에 사는 어부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 홀연히 나타난 복사꽃 숲 속 마을, 꿈결 같은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로 중국의 시인 도잠(陶潛) 도원명(陶淵明)(365~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비롯한 말이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간 한 어부가 있었다. 그가 길을 잃고 한참을 가다 보니 강물 위로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 오는데 그 향기에 취해 꽃잎을 따라가다 보니 양쪽으로 복숭아꽃이 만발한 수백 보에 걸치는 거리가 나타났고 문득 앞에 커다란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산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는데 마치 빛이 나는 듯 한 구멍 밑으로 작은 동굴이 뚫려 있었다. 그 동굴은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는데, 안으로 수 십보를 들어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더니, 별안간 확 트인 밝은 세상이 나타났다. 그곳의 땅은 넓고 평평했으며 기름진 논밭 과 풍요로운 마을과 뽕나무, 대나무밭 등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길은 사방으로 뚫려있었고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도 들렸으며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 두리번거리고 있는 어부에게 그 곳 사람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를 보고 크게 놀라 어떻게 왔는가를 물었고 그를 초청하여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식사를 대접했다. 어부가 그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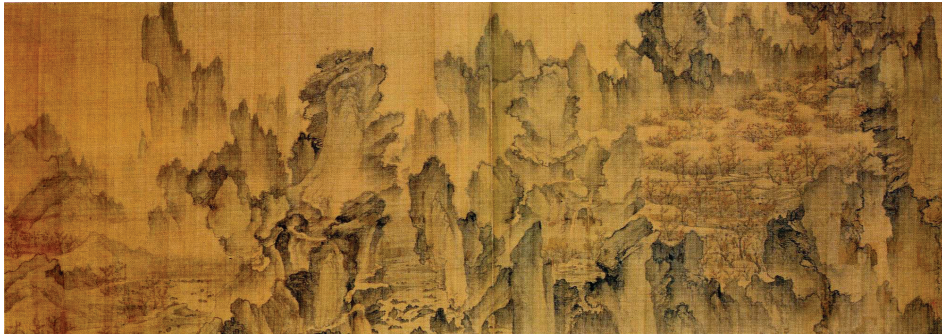
“우리는 조상들이 진(秦)나라 때 난리를 피해 식구와 함께 이곳으로 온 이후로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세상과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주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며칠간을 머물렀다. 어부가 그곳을 떠나려 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와서 당부하기를 “우리 마을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부는 너무 신기한 나머지 배를 찾아 되돌아오면서 길목마다 표시를 하고는 즉시 고을 태수에게 사실을 고하였다. 태수는 기이하게 여기고, 사람을 보내 그 곳을 찾으려 했으나 그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 후 유자기라는 고상한 선비가 이 말을 듣고 그곳을 찾으려 노력을 했으나 찾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다.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 길을 묻는 사람 없이 도원경은 이야기로만 전해 졌다.⁶⁾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는 유토피아를 재현하고 있다. 현실에서 경험되지 않은 이 Non-Place는 비현실의 공간이며 정신의 장소이다. 안평대군 본인의 꿈이 새로운 장소로 구현 되었으며 이 어디에도 없는 장소 No-Where 는 현재에도 Now-Here (지금여기) 에 존재하는 과정이 창조되었다.

6) 안휘준.이병환, [안건과 몽유도원도], 예경산업사, 1991년 초판,12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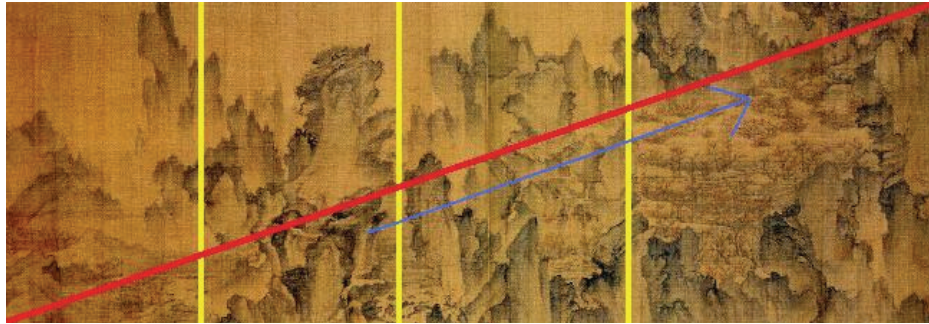
『몽유도원도』가 조선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 안평 대군의 현실에서 이탈되는 작품으로서가 아닌 현실을 넘어선 또 다른 장소의 존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하여 새로운 정신의 공간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창조된 장소는 오늘날까지도 현실이라는 제한된 실제 공간을 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체의 한계와 장애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인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도판1) 안견, 『몽유도원도』 1447, 두루마리 비단에 담채
38.7X106.5cm 일본 천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몽유도원도』는 일반적인 조선의 회화 작품과 구별되는 화풍과 양식상의 특징들이 보인다. 보통의 수권(두루마리)그림의 경우는 회화가 전개되는 이야기가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전개되는 것이 통례인 반면 『몽유도원도』는 그와 반대로 왼편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오른편 상단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렇게 왼편 하단에서 오른편 상단 방향의 대각선 시선 유도로 보는 이로 하여금 점진적인 시각적인 절정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도판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왼편아래에서 오른편 상당으로 이어지는 시선 방향>

이러한 사선을 따라 네 부분의 커다란 경군으로 구성된 『몽유도원도』는 왼편 첫 번째 경군은 나지막한 야산들로 배치 되어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사실적인 토산들로서 나머지 도원으로 이어지는 다른 바위산과 기암절벽들과는 달리 현실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안평대군의 꿈속에서 현실세계와 비현실의 세계, 즉 도원의 세계로 접어들기 시작한 곳으로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경군은 도원으로 다다른 외곽지역으로 도원의 바깥쪽 입구다. 이곳의 기암절벽 에는 허리를 휘감는 뱀과 같은 산길이 보는 이의 시선을 점점 더 멀고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 이 부분은 형태가 다양한 모습을 띤 산들이 조금씩 높아지며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길이 터널처럼 생긴 큰 산의 굴속으로 사라지며 시각적 고조 감을 높이고 있다. 이 터널의 좌측에 위치한 산은 특유의 역동감이 살아있으며 터널의 위편의 기이한 산은 마치 어떤 괴물의 손처럼 돌기들이 뻗쳐있다. 뒤의 먼 산들 역시 삐죽하게 솟아 있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고조 시켜준다.

터널 밑으로 사라 졌던 산길은 세 번째 경군의 산허리를 따라 다시 나타난다. 산길 우측에 흘러내리는 여러 단의 폭포는 더욱 신비로운

절경을 선사한다. 안평대군이 도원을 찾아가면서 보았던 기괴한 산수의 기암절벽과 물굽이로 ‘시내가 굽이지고 길은 꼬불꼬불하여 마치 백 번이나 꺾여 나간 듯, 곧 길을 잃을 것만 같다’던 바로 그곳이다. 가운데 험한 물굽이와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높은 봉우리들은 그 형태가 천변만화 한다. 특히 오른쪽 한중간에는 이단으로 쏟아져 내리는 환상적인 폭포 물줄기가 보여 고요한 중에 맑게 들리는 물소리가 들릴 듯하며 그 아래로 벌써 도원의 꽃나무가 일부 보여 선경이 가까움을 말해주고 있다. 이곳의 산들은 도원의 안쪽 입구를 형성하며, 여기에 보이는 산을 비집듯이 나타난 길목이 바로 도원명의 『도화원기』에서 어부가 간신히 들어간 구멍이라고 보여 진다.

여기서 몽유도원도에서 보여 지는 폭포의 이미지와 본연구자의 작품에 표현된 폭포를 비교하자면 동양회화에서 물의 이상향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전통색체에 있어서 투명한 여백으로 표현되어 심리적 여유와 넓은 세계에 대한 공감각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몽유도원도에서 폭포는 주변의 이미지를 더욱더 신비로운 곳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폭포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폭포의 의미는 같지만 반짝이 가루를 이용해 좀 더 신비롭고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이상세계로 가는 또 하나의 연결 고리인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의 경군은 이 그림의 핵심인 도원의 경치로 사방이 기암절벽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위편에는 바위들이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어 일종의 동굴과도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도원의 우측 상단에는 대나무 숲에 싸인 초가집들과 그 아래의 물가에는 배의 뒷머리가 보이기도 한다. 이곳의 복숭아꽃들은 빨강과 연분홍색으로 표현되어있고 꽃의 수술은 노란색과 금채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잎은 파랑, 초록, 연초록 등의 색채로 그려져 있어 영롱하고 신비로운 분위

기를 자아낸다.

『몽유도원도』는 이처럼 크게 보아 네 개의 경물 군들이 조화를 이루며 짜여져 하나의 통합된 장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경물군은 각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듯하면 서도 시각적으로 잘 조화되어 있다. 왼편 첫 번째 경물인 현실 세계의 토산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산들은 기이한 형태의 기암들이 용트림을 타듯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기암절벽과 산들은 적막하고 고요한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환상적인 비현실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상의 느낌은 텅 빈 도원의 모습에서 가장 고조된다.⁷⁾

'안평대군의 도원에서는 사람이 일체 보이지 않는다. 안견은 도원의 정적을 완성하기 위해, 도원을 몽유하는 안평대군의 일행마저 그려 넣지 않았다.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의하면 도원은 분명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것은 이 작품이 꿈속에서 무릉도원을 발견했던 과정을 그린 것, 즉 꿈의 앞부분을 그린 것이 아니라, 황홀한 도원을 익히 보고 도취되었다가 험한 산수를 거쳐 다시 실경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즉 꿈이 막 깨려는 순간의 인상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⁸⁾

'그러므로 작품 속에 인적이 없으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무릉도원에 대한 애 뜻한 정한만이 쓸쓸한 기운으로 남아 느껴지는 것은 그 시대의 사대부의 이상향에 대한 정서가 작품 전체에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화가는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우주의 무한한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노닐 수 있게 하는' 즉 정신의 자유로운 방랑을 유도하는 힘을 갖게 한다는 점도 상기할 만하다.'⁹⁾

7) 몽유도원도와 신곡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공간 연구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정경

8) 오주석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1> 1999, p. 66

9) 마이클 설리반, 한정희, 최성은 옮김. <중국미술사> (예경, 1999). pp. 155-158

이처럼 사람들이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현실세계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영원한 안녕과 평화에 대한 갈망은 현실의 저편을 갈망하고, 현실이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유토피아적 소망은 더욱 강렬한 힘으로 나타났으며, 몽유도원도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보여 졌다.

② 안중식(安中植)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조선시대의 도원도는 초기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시초로 하여 여러 변화를 거치며 전개 되었다. 산수화 발생에 있어 정신적 바탕이 되었던 유가의 정신은 사실적 공간에서 이상적인 공간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도원도 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의 도원도를 통해 본 이상향의 모습은 고사의 내용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도원의 우의를 전달하고자 한 작품이나, 도원을 소재로 아름다운 산수 경관을 묘사한 작품 등 다양한 화풍으로 창작되었다. 그중 조선시대 화가들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의 도원도를 남긴 화가 '안중식(安中植, 1861~1919)'¹⁰⁾의 작품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10) 1861(철종 12)~1919. 조선 말기의 화가.



(도판3)

安中植, 도원문진도 <桃源問津圖>
 비단에 수묵채색 164.4× 70.4cm
 용인 호암 미술관 소장



(도판4)

安中植, 도원행주도 <桃源行舟圖>
 비단에 수묵채색 164.4× 70.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의 도원도 들은 대부분 화려하고 장식적인 기법과 복잡한 산수 구성을 이룬 작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중 도원도의 전형적인 도상에 충실한 작품으로는 1913년에 그려진 <도원문진도>와 <도원행주도>가 대표적이다.

<도원문진도> (도판3)의 화면은 아래쪽의 동굴로부터 시작하여 진한 청록으로 그려진 기이한 바위와 산들로 꽉 차있으며, 동굴과 그 너머 가옥들 주변에 글진 담홍색의 복사꽃은 진한 먹색의 태점과 함께 장식적인 색감을 더하고 있다.

동굴과, 나룻배, 그리고 화사한 복사꽃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도원행주도> (도판4)의 도상은 <도원문진도>와 유사하다. 화면의 시점 또한 동굴 너머에까지 이어진 물길이 보일 정도로 깊은 심원법(心遠法)¹¹⁾을 사용하여 차이를 보인다. <도원문진도>의 청록기법은 산이나 바위의 바깥쪽에 청색을, 안쪽에는 녹색을 칠한 전통적인 기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도원행주도>의 청록기법은 녹색을 주조로 하고 있으며 사용된 색의 먹선과 함께 일종의 준(竣)으로 활용되어 바위와 산의 윤곽과 양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도원행주도>의 화면 상단에는 조선 중기부터 도원도의 제화시로 널리 애용되었던 왕유의 (도원행) 전문이 적혀있다. 이렇듯 안중식의 도원도는 어부의 모습만으로 도원을 암시하고, 제화시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한다.¹²⁾

안중식의 도원도는 노래한 제화시를 적어 넣은 것은 작품에 담긴 도원의 의경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어부 모티브를 활용할 경우에는 수면의 비중을 줄이고 산수 구성을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의미의 차별성을 유지 시켰다.

11) 심원법(心遠法)은 높은 산의 정상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표현하는 방법

12) 조맹부의 <화계어원도>, 허용 pp 123~124 참조

③ 변관식(卞寬植)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1920년대 이후 안중식에게 그림을 배운 변관식, 노수현, 이상범, 박승무 등이 화단에 등단하게 된다.

이들보다 체험적이며 실증적인 시각으로 자신들의 작품세계에 넓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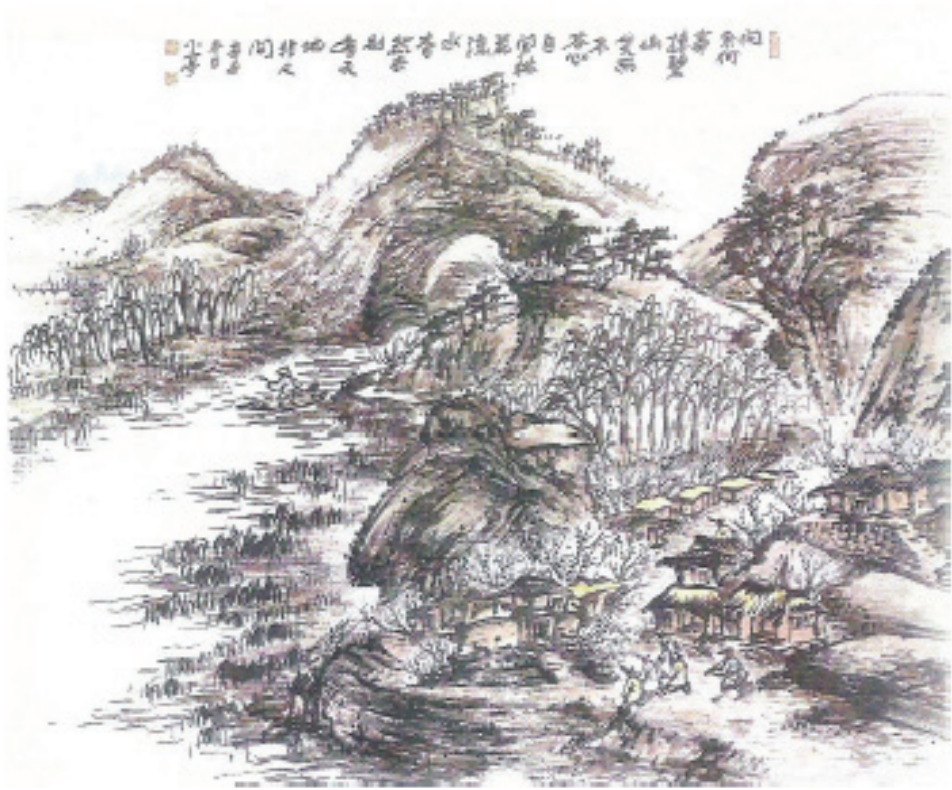
그 중 정형산수화 유형의 도원도를 그린 작가 소정 변관식(卞寬植, 1899~1976)은 흔히 늦가을 정경을 많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무릉도원을 많이 그렸다. 이 점은 그가 이상향에 대한 자신의 동경이 바로 도원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판5)

卞寬植 조춘<肇春>, 1944, 종이에 수묵담채, 126×118cm, 개인소장 .

1944년의 조춘<肇春> (도판5)은 그의 무릉도원 초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봄의 모습에 빗대어 도원을 표현한 작품으로 신선을 따라가는 어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평범한 산촌을 이상적인 도원경으로 환원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도판6)

卞寬植, 무릉도원<武陵桃源>, 1961,종이에 수묵담채 , 52×66cm, 개인소장

1961년 <무릉도원> (도판6) 역시 화면 왼쪽으로는 지금 어부가 석문을 향해 노를 젓고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복숭아꽃 핀 산촌의 초가집과 기와집에 펼쳐지고 있다. 갈색을 주조로 했으며, 속도감 넘치는 붓 자국으로 화면에 율동감이 살아난다.

변관식의 봄 풍경 속에서 복숭아꽃 마을로 향하는 촌로들은 작품 속의 풍경들이 대부분 도원경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작품에 봄 풍경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은 바로 변관식 자신의 이상향을 전통적인 도원경에 기탁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그가 어디까지나 전통

적인 정신세계를 토대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추구해 갔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다. 결국 그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의 초가와 인물이 있는 새로운 별천지가 형상화 된 것이다. 또한 그의 무릉도원에는 까칠까칠한 붓 맛과 즉흥적인 필치가 강한 동세하나의 화면 안에 여러 개의 시점이 공존하면서 역동 감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구성이 보인다. 이처럼 무릉도원은 변관식 특유의 방법으로 재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변관식의 정형산수들은 이러한 사경산수가 이상향으로 정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의 전통적인 이상향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사경산수를 통해 그가 발견한 이상세계는 진폭이 큰 구성과 강인한 필세를 결합시켜 특유의 한국적인 도원도를 이룩한 것이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연을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산수화로 표현하며, 그림속의 어부처럼 유유자적 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으로 재해석 하여 본 연구자의 작품 에도 표현되고 있다.

13) 중국과 한국의 도원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장경연 54P

2. 서양의 유토피아적 이상향

1) 이론적 배경

서양의 유토피아적 이상향은 무엇인가! 결국 꿈이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공간이지만 그곳에 대한 동경과 이 상상 공간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점은 동양의 유토피아적 이상향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유토피아란, 더 나은 삶 혹은 이상적인 삶에 대한 꿈이 실현되는 곳, 인간들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현실에는 없는 곳을 뜻한다. 주어진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머무르지 않고 항상 개조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인간들로서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개인들의 삶이 뜻대로 되기보다는 많은 좌절을 안겨주고 있을 때,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더욱 절실해지기 마련이다.¹⁴⁾

'토마스 모어' ¹⁵⁾ 의 <유토피아>는 이상세계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졌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영국의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다. 유토피아는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인데 그 의도는 현실의 사회와 대치시켜서 현실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그리스어의 ou(없다), topos(장소)를 조합한 말로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지명으로써 쓰고 있으며 '이상향(理想郷)'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마음

14) 최현덕(1998)서양에있어서유토피아사상의역사.한일장신대학교학술지.pp.81.

15) 토마스 모어[Thomas More,1477.2.7~1535.7.6]이상적 국가상 그린 명저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정치가·인문주의자. 르네상스 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에라스무스와 친교를 맺었다. 외교교섭에도 수완을 발휘했다. 해학취미의 소유자로 명문가·논쟁가였다.

의 상태가 현실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추구할 때 유토피아적 사고가 생기게 되어 그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유토피아적인 이상사회란 상대적으로 현실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꿈으로 사라지고 이상사회를 이룩하지는 못 하였다.

이러한 유토피아니즘은 인간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유토피아니즘을 가지고 현실 사회의 모순을 폭로함으로써 그 개혁을 촉구하거나 현실을 초월하기도 한다. 사회개혁을 촉구하는 유토피아니즘은 미래지향적 사고로 역사에 있어서 새로움을 전개하여 현실을 보다 좋게 개선하려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혁신하려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가상의 세계와 이상사회를 그리기도 한다.¹⁶⁾

모어는 인간에 의하여 차별 받는 사회, 가진 자에 의하여 못가진 자들이 차별을 받고,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사회를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로 규정한다. 그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대안들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따라서 그의 유토피아는 꿈의 세계에 대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차별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확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의 유토피아는 이념을 설정하고 그 이념에 따라서 이상 세계를 건설하려는 플라톤의 유토피아와는 달리 현실적인 삶에서 이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출발한다. 모어는 플라톤의 이상국가의 모델에서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플라톤이 제시한 귀족 중심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빈

16) 김종석, (유토피아니즘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86 pp.3-5

부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이상적인 국가를 설정하게 된다. 인간은 현실에 가장 충실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현실을 거부하는 이념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고, 이상이 없는 현실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 이념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현실은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와 조건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언젠가 도달해야 할 세계에 대한 이상을 심어주는 희망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¹⁷⁾

유토피아 공간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神)적인 질서가 완벽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영생불멸(永生不滅)의 세계, 종교적 공간인 낙원(Paradise), 무한히 풍요롭고 모든 소망과 욕구가 충족되며 끝없이 무절제한 쾌락을 추구, 법과 규범이 없는 영원한 삶이 있는 신화적 공간인 코케인(Cockaygne), 코케인 에서의 무절제한 쾌락이 아닌 욕망을 자제하며 자원과의 조화를 이루는 아르카디아(Arcadia 낙원국)등이 있다.¹⁸⁾

아르카디아(Arcadia 낙원국) 는 아름다운 풍광과 순박한 인정을 지닌 목가적 이상향을 뜻한다. 서양 문화에 단골소재 중 하나로 로마의 대문호 베르길리우스가 묘사한 고대 그리스 섬에서 비롯되었으며 동양의 무릉도원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20세기 들어서 아르카디아는 기계문명 속에서 여가를 꿈꾸는 현대인들의 이상향, 낙원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술 작품에 등장한다. 무한의 풍요로운 세계라는 곳에서는 코케인과 다를 바 없지만, 코케인은 무절제한 쾌락을 추구하는 반면, 아르카디아는 자연적 풍요의 개념에 도덕적 의미가 첨가된 이상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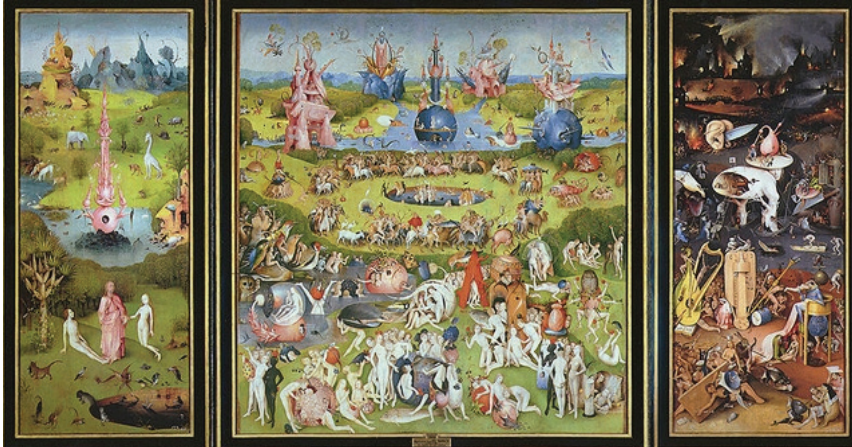
17) Ibid.pp-183-190

18)정재서(2002)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 숲 .p.25

이러한 이상세계를 꿈꾸며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무릉도원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많은 작품 가운데 히에로니무스 보스 <지상의 쾌락의 동산>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작품 분석과 아르카디아와 연관성이 있는 니콜라 푸생, 티치아노 베첼리오 작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서양 회화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이상향

① Hieronymus Bosch 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도판7) 쾌락의 동산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

'보스' 19) 라는 이름은 그의 출생지인 네덜란드 남부 마을 스텔르토헨보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는 평생을 스텔르토헨보스에서 살았다. 그는 독일의 미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문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속했고 저명한 인물이었다.

보스(Bosch)는 전통적인 종교 제단화를 그리기도 했지만, 공상적인 반인반수의 짐승들을 묘사한 그림들로 더 유명하다. 그는 인간의 죄와 부도덕함을 상징하기 위해 악몽 같은 환영들을 대형 패널화에 그려 넣었다. 이러한 환영들은 중세 후기에 더욱 공감을 얻었고 보스는 초기 필사본 삽화들에서 영향을 받아 이런 형상들을 발전시켰다. 그는 인간의 결점들과 온갖 유혹들을 초현실주의적이고 상징적

19) 히에로니무스 보스 [Hieronymus Bosch,1450?~1516] 네덜란드의 화가. 플랑드르미술의 대표 화가로 작품은 종교적 제재부터 중기 이후 종교적·비유적 제재로 나아갔으며,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결부된 경이적 환상세계를 전개하였다.

인 형상들로 묘사하여 관람자를 교화시키고 구원하려 했다.²⁰⁾



(도판 7-1 왼쪽부분)

(도판 7-2오른쪽부분)

보스의 대표작인 <지상의 쾌락의 동산> (도판7)은 폴랑드르 전통의 세 폭으로 이루어진 제단화²¹⁾이다. 양쪽 패널을 열면 <쾌락의 동산>이 펼쳐지고, 인간의 온갖 탐욕이 그려진 가운데 패널을 지나

20) 네이버 지식백과

21) 제단화:신이나 정령 따위의 초자연적인 존재에 희생이나 공물을 바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 위에 세웠던 그림

오른쪽 패널의 <지옥>으로 이어진다.

아담과 이브의 창조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데 비해 탐욕과 지옥의 세계는 무질서하고 기괴하다.

벌거벗은 인간들은 괴상하게 변형된 과충류나 거대한 식물들에게 갇히거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며, 쾌락을 즐기는 남녀를 바라보면 거의 관음증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다. 가운데 패널의 오른쪽 중간과 아래쪽을 보면 사과를 따먹으며 즐기는 남녀가 있으며 사과를 들고 춤추는 두 여자의 머리는 지혜의 상징인 올빼미로 덮혀 있다. 여기에 그려진 수많은 탐욕은 분명 아담과 이브의 유혹이며, 타락한 인간들은 오른쪽 패널에서 벌을 받게 된다. 음악에 지나치게 탐닉한 사람들은 하프에 매달려 죽고, 어떤 이는 머리가 새인 옥좌의 괴물에게 통째로 먹히고, 멀리 유향불이 터지는 지옥 아래엔 커다란 귀에 눌린 벌레 같은 인간들은 꿈틀 대고 인간의 영혼들은 우왕좌왕할 뿐이다.

정상적인 모습은 화면 가운데서 조금 위에 그려진 한 인간의 얼굴뿐인데, 화가자신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인물은 마치 방관자처럼 이 모든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다. 보스의 그림은 아마 인류가 상상한 지옥의 모습 중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이미지들일 것이다.²²⁾

또 지옥의 기계는 남성 기관을 상징하고 사람 얼굴을 가진 하얀 괴물은 육체 감각의 지배를 받아서 죄에 빠져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저주받은 인간의 숙명을 나타낸다. 밑쪽의 악기들은 신의 섭리를 듣지 않고 '귀가 멀었던' 죄인들이 지옥에 빠져 겪는 고문을 암시한다. 사탄은 파멸한 영혼들을 집어 삼켜서 배설물로 내보낸다. 그러나 보스의 지옥은 중세 지옥을 연상시키는 강박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창의력은 인간에 대한 냉철

22) 마틸데 바티스티니, 조은정 (상징과 비밀 명화를 만나다.) 예경,2007,p166

한 관찰에서 나온 교훈이라 생각한다.

왼쪽날개의 안쪽패널에서는 회색이 선명한 색채로 대체되며, 천지창조의 마지막 3일이 완성된다. 기린, 코끼리, 유니콘 같은 신화 속 동물들을 포함한 살아있는 창조물을 낳는다. 중앙에는 생명의 샘이 솟고, 높고 가는 꽃과 유사한 구조물은 정교하게 조각된 고딕풍 예배당과 유사하다. 그 기단의 진흙 속에서 반짝이는 진귀한 보석과 환상적인 동물 일부는 아마도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 이래에 경이로움으로 서양을 매혹시킨 인도에 대한 중세의 기록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유럽인들은 이곳을 잃어버린 에덴 낙원으로 믿었다.



(도판8 가운데 부분)

가운데 패널은 죄 없이 우리가 지금도 에덴동산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한 그림이다. 거기에는 아이도 없고 노인도 없다. 온 사방에 기쁨이 넘친다. 그곳은 과일과 꿀이 흘러넘치는 곳이다. 희롱하거나 부끄럼 없이 공공연히 여러 가지 사람놀이에 몰두한다. 동물을 탄 남성들은 처녀들이 있는 중앙 연못 주변을 회전목마처럼 돌고, 하늘에는 섬세한 날개를 단 인물이 떠다닌다. 이 세 폭 제단화는 보스의 대제단화 중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 편이다. 중앙 패널의 느긋한

분위기는 선명하고 고른 조명, 그림자의 부재, 밝고 높은 명도의 색체에 의해 고조된다. 거주자들의 창백한 신체는 검은 피부의 인물들에 의해 두드러지며, 낙원의 풀과 나무 사이사이에 핀 꽃처럼 빛을 발한다.²³⁾

이처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상들이 존재하는 보스의 그림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기묘한 묘사들로 가득하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독창적이고 동시에 수수께끼 같은 예술가였던 보스의 그림은 마치 마술 같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동 식물들이 각자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계를 찬미하는 듯 몽환적이다.

23) 월터S 기본슨, 김숙 (중세말의 환상과 엽기 히에로니무스 보스) 시공사, 2003 p.92

② Nicolas Poussin 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도판9)

니콜라 푸생-아르카디아의 양치기들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1655년경 캔버스에 유채 185×121cm, 루브르 박물관 파리

그리스 신화 속에서 주제를 빌려와 고대의 지식과 이념을 증명하려 이상향 적 풍경화를 표현한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은 1594년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루앙 근처의 작은 마을 빌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국왕의 소장품들을 직접 접하며 이탈리아의 거장들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들에 매혹을 느꼈다. 이탈리아의 풍취와 상징성이 시적으로 승화되어 표현되었고 자연 풍광이 강조되었다. 그림의 질서를 좋아 했던 그는 불투명하고 어두운 부분을 싫어했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와 조화에서 오는 지성미를 오랫동안 추구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모범을 찾

았다. 인물들의 표현에 엄격했으며, 인물들에 따라 그림의 장르를 웃기는 그림, 감동적인 그림, 심각한 그림, 무서운 그림 등으로 구분 짓기도 했다. 그의 그림에는 이야기를 전개 하는듯한 요소가 강하며, 전체적으로 서사시적인 분위기를 띤다. 이런 설화적인 그림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화로운 형태에 서정미를 담은 그림은 프랑스 고전주의의 모범이 되었고, 17세기 프랑스 화단에 중요한 화풍을 형성했다.²⁴⁾

니콜라 푸생의 작품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에서 보여 지는 이상향 적 메시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태초의 모습이다.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 석관이 그려졌다는 의미는 이상향을 갈망하는 표현으로 이를 죽음으로써 상반되는 현실과 비현실의 모호한 관계를 상징하려 하였다. 죽음도 미움도 없는 태초의 모습만을 표현하려 했던 니콜라 푸생과의 이상향 적 개념을 동일시 할 수 있다. 니콜라 푸생의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해석 해볼 수 있다.

이 그림의 중앙에는 아주 이상한 석관이 있고, 그 석관을 중심으로 네 명의 인물이 배치되어있다. 인물들 바깥으로 주위를 둘러 이상향 아르카디아의 경치가 전개된다. 동심원의 파문처럼 중앙에서부터 원을 그리며 바깥으로 확대되어가는 구성은 이 그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풍경과 인물은 뚜렷하게 경계를 지으며 구분되어 있지만 인물과 석관은 중앙의 두 양치기로 인해 서로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 두 양치기의 동작은 석관에 각인된 글자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마치 그림이 던지는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듯 보인다. 그림의 수수께끼는 먼저 석관에서 제기된다. 두 양치기의 손가락은 하나의 석관을, 다른 하나는 문장 가운데 특별히 한 글자를 가리키고 있다. 문장은 'Et n Arcadia ego' 이고, 가르치는 글

24) 박정욱(2009)무의식의마음을그린서양미술.이가서.p.110-113.

자는 'r' 이다. 석관위에 이 문장이 새겨져 있고, 그림의 배경이 아르카디아 이고, 양치기들이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 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문장의 뜻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아르카디아에도 나, 죽음은 있다.' 아름다움의 이상향에도 죽음은 있다. 죽음은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죽음은 그 자체로 수수께끼이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풀며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그림의 주인공, 즉 석관의 주인공은 바로 죽음이다. 이 그림의 구조는 전반적으로 매우 재미있다. 각 인물들의 시선과 동작을 차례로 연결시켜 나가면 하나의 훌륭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제일 왼쪽의 양치기는 석관을 맨 처음 발견 하고 그 위에 새겨진 글자를 바라본다. 그 다음 양치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가락으로 글자를 자세히 짚으며 문장을 해독하려 애쓴다. 세 번째 양치기는 누군가를 데려와 문장의 뜻을 묻고,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그 문장을 해석해 준다. 이렇게 각 인물들은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양치기는 주제의 제시이며, 두 번째 양치기는 주제의 발전이며, 세 번째 양치기는 주제의 전환이며, 여인은 주제의 결론이다. 이 그림에는 이상하게도 이런 4단계의 화법에 맞추어 배경조차도 네 단위로 되어 있다. 나무 덩굴도 네 개이며, 곧게 뻗은 나무도 네 개이며, 멀리 보이는 산도 넷이다. 그림 전체의 수수께끼 놀이인 듯 유희적인 면이 강하다.²⁵⁾

그림의 배경이 되는 아르카디아(Arcadia)는 그리스의 실제 지명이기도 한데, 그리스인들의 이상향이자 고대부터 서구인들이 동경해왔던 지상낙원이었다. 실제로 아르카디아는 그리스 중부 지방에 현존했던 척박한 초원지대였지만, 베르길리우스가 그의 문학에서 아르카디아를 풍요와 축복의 땅으로 처음 묘사하면서부터 이후 서양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낙원과 같은 이상향으로 묘사되었다. 그런데

25) 박정욱(2009)무의식의마음을그린서양미술.이가서.p.107-109.

작품에서는 이상향인 아르카디아에도 나, 즉 죽음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의인화 된 죽음이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조용하고 엄숙한 느낌마저 드는 무덤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강조된다.

③ Tiziano Vecellio 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도판10)

티치아노 베첼리오- 전원 음악회 (The Pastoral Concert) 1509년
캔버스에 유채 105 x 136cm 루브르 박물관 파리

티치아노 베첼리오(Tiziano Vecellio, 1490년경~1576년)는 베네치아와 신성로마제국 경계 사이의 산악지역에 있는 마을 피에베 디 카도레 에서 태어났다.

그는 ‘전원 음악회’라는 제목 그대로 고요한 전원의 풍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음악의 주제가 등장하는 장면은 시나 신화, 전설 등에서 가져온 것이 많다. 실제로 티치아노는 야코포 사나자로(Jacopo Sanna

zzaro)가 1504년에 쓴 시 <아르카디아>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여기에는 아르카디아의 목동들이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두 남성을 주목해보면, 한 사람은 퍼프소매가 달린 붉은 옷을 입고 류트를 연주하고 있으며 금발을 한 다른 한 사람은 맨발로 언덕에 걸터앉아 있다. 이들의 옷차림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부터 그들이 귀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현실의 존재하는 인물인 반면, 그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옆의 두 여인은 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여인들의 별거벗은 몸은 이상적이고 풍만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남성들과는 달리 은은하게 빛나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각각 음악과 물을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사용되었다.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여인은 물을 길고 있는데, 우물처럼 보이는 대상은 당시 귀족들에게 인기 있는 골동품이었던 석관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빠져 주변 상황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몸을 앞으로 약간 구부린 채 서 있다. 다른 여인은 남성들과 가깝게 앉아 우리에게 등을 보인 채 뒤돌아 있으며 플루트를 들고 있다. 원경에는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완만한 언덕이 한쪽에 있고, 나무 아래 목동이 양을 데리고 있다.

화가는 특히 풍경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작품의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서 더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자연의 곡선이 만들어내는 유기적인 흐름은 풍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작품 전체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은하게 빛나는 부드러운 피부는 배경의 색채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인물의 윤곽선을 뚜렷하게 표현하지 않아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자 본래 하나임을 새삼 알려준다.²⁶⁾

베르길리우스의 목가로부터 시작해 서구의 이상향으로 제시된 아르카디아, 그 곳에서의 삶은 명예와 권력, 탐욕과 욕정에서 벗어나 자연이 베풀어준 그대로를 거두며 사는 삶이다. 희로애락의 인간사, 그리고 죽음마저도 아르카디아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일부다. 결국 유토피아라는 것은 더 없이 자연스러운 삶을 실현하는 것, 자연과 합치를 이루는 삶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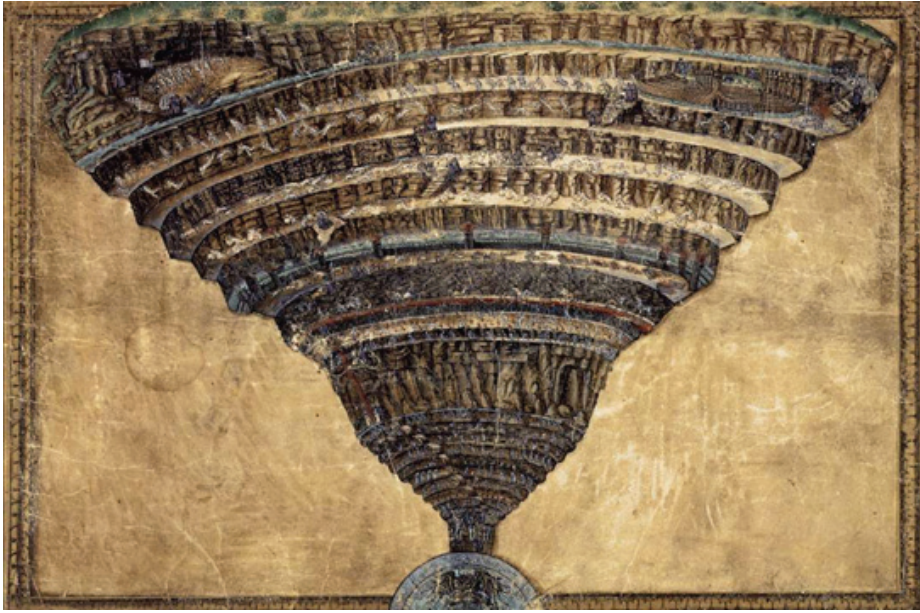
26) 네이버 캐스트-티치아노

④ Dante Alighieri 의 작품에 나타난 유토피아

이탈리아 피렌체의 시인 단테 알리기에(Dante Alighieri·1265~1321)는 중세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우주의 끝을 다녀오는 여행으로 공상 과학 소설이 등장하기 수세기 전에 단테는 지구를 넘어, 달과 태양을 지나, 행성을 거쳐, 항성에까지 날아갔다. 우주선이나 그 밖의 다른 비행 도구가 아닌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기원전70~기원전19·아이네이스의 저자)의 안내로 떠난 시간을 초월한 여행으로 죽은 지 천년이 넘는 사람이 단테가 동반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 여행이 아니다. 단테 『신곡』(神曲·LaDivinaCommedia)에 그려진 이 광활한 여행은 중세의 우주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서사시와도 같다. 우주의 한 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여행하는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의 눈을 통해 우리는 중세의 공간세계 전체의 세부적인 지리를 파악할 수가 있다.²⁷⁾

기독교 신학에 근거한 정신공간으로의 여행인 『신곡』은 육체와 정신의 공간이 엄격히 구분된 중세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단테의 여행으로 육체를 이용한 여행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초월한 여행이다. 육체적 존재로서 단테는 중세 기독교도들이 육체와는 별도로 내세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영혼의 비물질 영역을 여행한 것이다.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공간, 즉 현세와 내세 모두를 다 포함한 『신곡』은 기독교적 영혼 공간에 관한 최고의 지도인 셈이다. 지옥, 연옥, 천국 등 독립된 세 곳의 영혼공간을 여행한 『신곡』을 그림과 함께 정리하여 설명하고자한다.

27) William Anderson, [Dante the Marker], 1980



(도판11) 산드로 보티첼리, <신곡 9옥 지옥의 그림>

지옥편

단테의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으로 그려진다. 지옥여행은 하강이자, 은총으로부터의 추락으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나선형 모양의 지옥 길을 내려가면서 햇빛이라고는 전혀 비치지 않는 암흑을 경험한다. 지옥은 사탄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죄가 무거워지고 벌도 더욱 더 참혹해지는 9옥(獄)이다. 가장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탄을 만나게 된다.



(도판12)

로렌초 베키에따, <연옥도> 1445

연옥편

연옥은 다시 별을 볼 수 있는 세계이며 상승의 여정이 시작 되는 곳이다. 단테의 『신곡』에서는 이 별의 유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별이 바로 구원의 이미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파란만장한 자신의 현실의 역경과 영혼의 성장과정이 나타나며, 그가 자신의 양심과 영혼 속에서 그 해결방법을 찾아내기까지의 이야기로 해석된다. 연옥은 천국에 가기 전에 수양을 하는 곳으로 죄인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음란 등의 일곱 가지 죄를 씻는 곳으로 영혼들에게 정죄의 과정을 통해 죄의 흔적을 씻어낼 수 있는 속죄의 장소이다.



(도판13) 구스타프 도레, <천국>

천국편

지옥과 연옥에서 다양한 색으로 뒤섞인 스펙터클한 에피소드들을 보았다면 천국은 그야말로 하얗고 투명한 빛 의세계로 표현된다. 천국은 이미 구원받은 축복된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산 사람들의 대도가 필요하지 않은 영혼들 그리고 어딘가로 나아갈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영혼들이 거하는 불멸의 완성된 공간이다.

정리하자면 『신곡』은 현실과의 모호한 접점에서 탄생한 지옥, 연옥, 천당의 순례기다. 신곡에서 나타난 유토피아는 천국이며, 환희의 빛과 춤, 그리고 찬양의 노래와 완전한 덕과 평화가 있는 신의 왕국으로, 단테는 영원한 저주의 공간 지옥을 벗어나 연옥의 정화를 거

쳐 천국으로 입성 했다. 이렇듯 실제 지형은 전혀 존재하지 않은 곳으로 환희의 빛과 짙은 안개로 가득할 뿐 신 앞에서는 공간의 한계인 것이다.²⁸⁾

이상으로 동·서양 회화에 나타난 이상세계를 정리하여 보았다. 동·서양의 유토피아 개념과 역사관, 유형은 모두 다르나 동·서양 모두 갖는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유토피아는 일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성립 되는데 실제든 환상적이든, 또는 미래이든 유토피아의 토대는 반드시 공간이라는 것이다. 둘째, 유토피아의 내용은 인간의 이상 꿈 소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사회를 개혁하는 마음에서든 종교적 갈망에서든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려하는 마음이든, 미래 지향적인 발상이든 유토피아의 주제는 이상과 소망이라는 뜻이다. 셋째, 유토피아 모두는 현재, 현실이 아닌 이상향, 상상력에 의한 성격을 지닌다.²⁹⁾

서양의 대표적 이상 공간 유형인 유토피아가 원래 ‘좋은 곳’과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단어처럼 이 세상에는 없는 좋은 곳을 의미 하듯, 동양의 대표적 이상공간인 무릉도원 역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일 뿐이다. 그러나 무릉도원은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에도 전파되어 동 아시아적 차원에서 수용되고 변모되면서 부단히 재생산되는 심상 공간으로서, 실재하는 어떤 공간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⁰⁾

앞에서 말한 동양의 이상세계의 작품 중 몽유도원도에 나타나는 복숭아꽃들과 기암절벽이 영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28)몽유도원도와 신곡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공간 연구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김정경

29)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p272~273

30) 김효민, <생명의 심상공간-무릉도원과 그 변주>, 중국어문학연구회, p330

이곳은 분명 현실세계가 아닌 이상세계인 것처럼, 히에로니무스 보스에 나타난 <지상의 쾌락의 동산>의 작품과 『신곡』에 나타난 천국은 동·서양을 대표해 영혼의 안식처인 유토피아를 그려낸 의미와 가치를 확대 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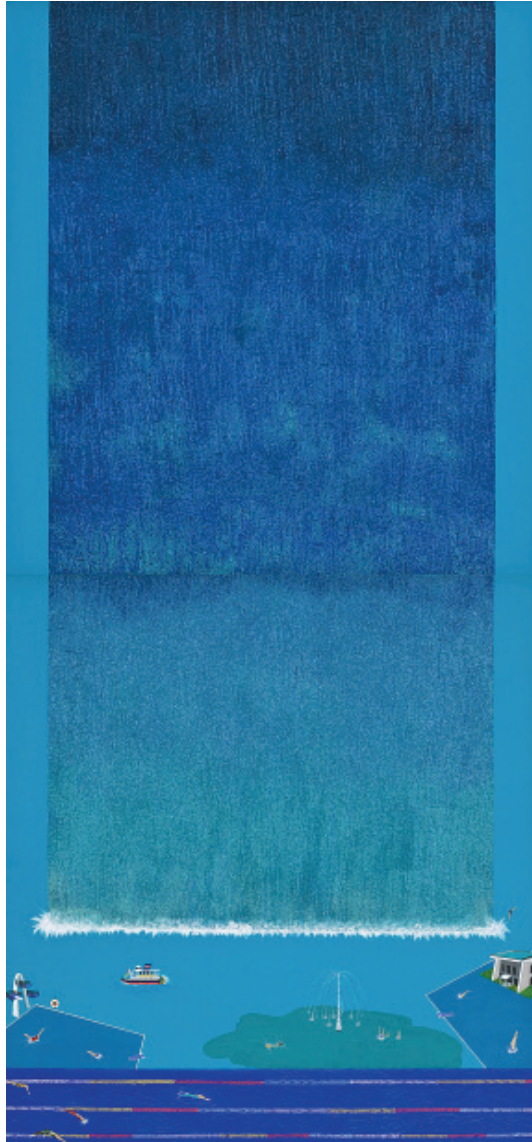
작 품 분 석

본 연구자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휴양지 여행에서 시작된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빛 바다에 누워 느낀 행복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세계에 대해 연구하며 작품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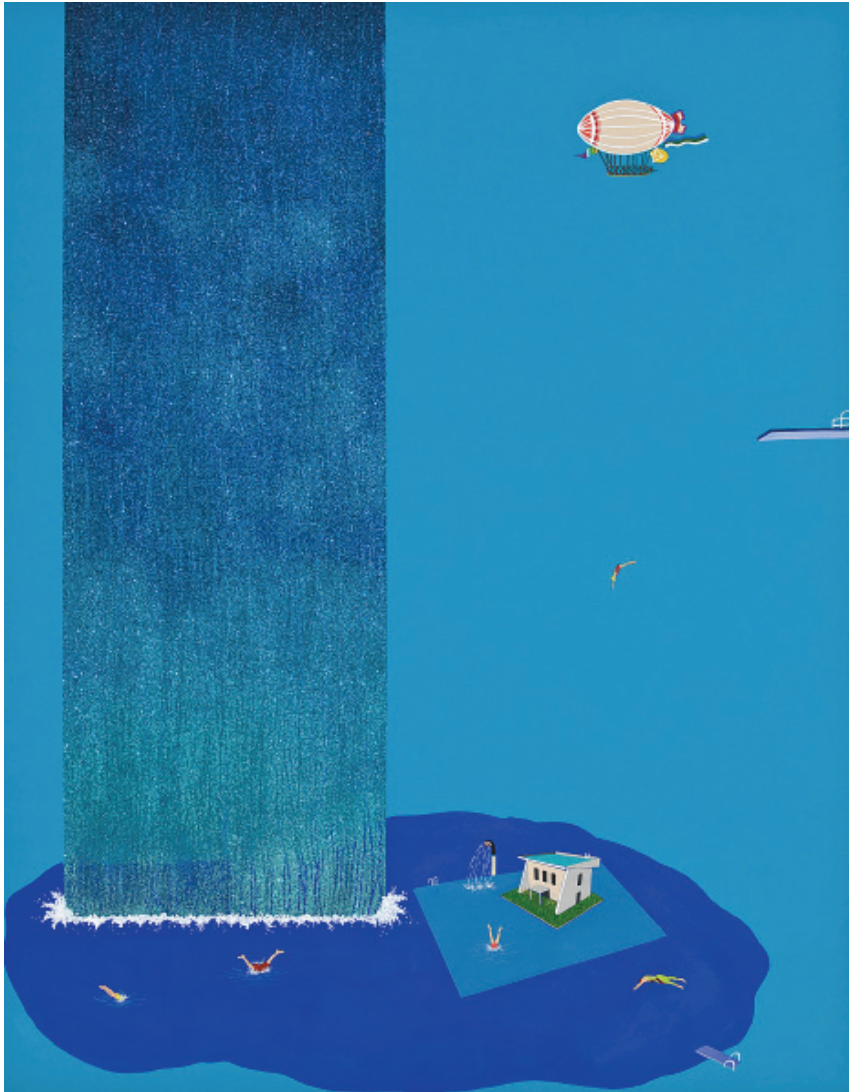
본인의 작품은 모두 푸른색이다. 푸른색 하면 먼저 연상되는 것은 드넓은 쪽빛 바다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동양에서의 푸른색은 평화, 발전, 봄, 희망 같은 긍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반해 서양에서는 고독, 우울, 차가움, 무거움 등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푸른색 천은 본인이 선호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동양에서 보여 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작품에 표현하였으며, 청량감과 신비로운 몽환적인 물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어 선택 하게 되었다.

작품에는 반짝거리는 폭포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러한 재료를 이용한 가장 큰 의미는 푸른색 반짝이 가루가 보여주는 청량감은 시각적 화려함과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 잡기위해 사용하였으며, 폭포를 신비한 곳으로 강조시키고 이상향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폭포는 현실세계에는 없는 장소로써 이상세계로 가는 또 하나의 연결 고리이자 통로인 셈인 것이다.

푸른 천위에 그려진 수영장과 그곳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억누르고 있던 모든 짐을 떨쳐버리고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모든 채색이 완료되면 반짝이 가루를 천의 표면에 붙여 만들어 내고, 그 위에 포크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물결의 이미지를 넣어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작품 1】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125 × 260cm



【 작품 2 】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91 × 116.7cm



【 작품 3 】



【 작품 4 】

3.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50 × 170cm
4.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50 × 170cm



【 작품 5 】



【 작품 6 】

5.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30 × 160cm

6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30 × 160cm

본 연구자의 그림은 대부분 푸른색 화면에 일괄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폭포와 그곳에 다이빙을 하고 상상력에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지내는 듯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작품 2 】에서는 신비로운 폭포 속에 집을 지으며 그 곳을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열기구(heat balloon)는 본인의 이상향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다. 물의 깊이나 두려움이 없이 서로 다른 곳에서 무작정 뛰어 들고 보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 들을 표현하였다.

【 작품 3 】는 수영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 되어있다. 서로 경쟁하며 앞만 보고 무조건 전진하는 현대인이 아닌 이상세계에 좀 더 빨리 가고 싶고, 내 것으로 소유 하고 싶은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경쟁은 현실세계에서는 치열하지만 본인의 작품에서는 치열하기 보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모두다 똑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 작품 4 】의 폭포 앞에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유롭게 쉼(rest)을 하는 사람은 본 연구자만의 내면에 있는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으며 【 작품 5 】 【 작품 6 】는 수영장이라는 작은 공간이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이빙을 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품 7】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100 × 8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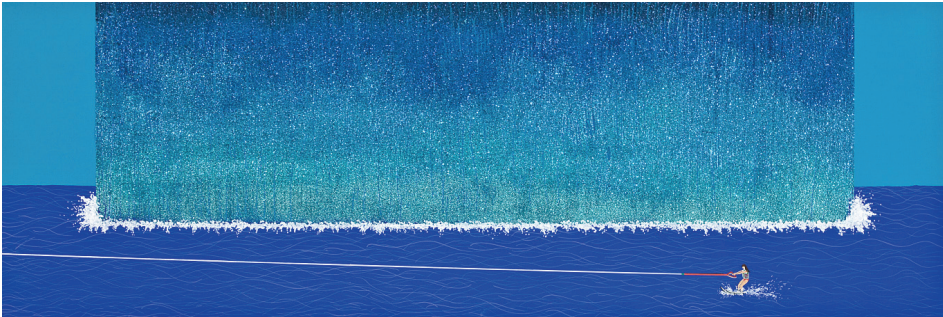


【작품 8】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116.7 × 91cm



【작품 9】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30 × 100cm

앞에서 설명한 작품들은 모두 폭포를 바라보고 즐기며 그곳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공간이었다면, 【작품 7】 【작품 8】 【작품 9】의 작품에는 안과 밖의 개념이 없이 공간을 초월하게 표현함으로써 창문을 통해 이상세계의 연결이 되었던 폭포 속의 또 다른 가상공간을 상상하며 표현해 보았다.



【작품 10】 폭포, 2012, 천에 혼합재료 ,반짝이 가루, 150 × 55cm

【작품 10】은 본인의 폭포 시리즈 중 마지막에 제작된 작품으로, 폭포의 배경과 푸른 바다위에서 무엇인가에 이끌려, 또 다른 자유와 이상세계를 찾아 그곳으로 향해가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다.

Ⅲ . 결 론

동·서양의 회화에서 나타난 이상세계에 대한 갈망은 수 많은 소재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인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상세계를 열망하면서 살아왔고 동양은 무릉도원으로, 서양은 유토피아로 불리는 이상향의 세계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은 인간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를 지향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양에서는 도연명의 도화원기, 서양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적 분석으로 나타난 회화 작품들과 단테의 신곡 등에서 나타나는 이상세계를 논하였다.

동·서양에서 보여 지는 이상향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상적인 사회와 세계를 만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본 연구자 역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고 사유하고 싶은 이상세계를 동경하며, 누구나 한번쯤은 상상하는 이상세계를 반짝이는 폭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큰 주제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유토피아라는 이상적 공간은 전 시대의 인류가 꿈꿔온 공통된 열망이었으며 유한한 물질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꿈의 소망과 치유 같은 영원한 안식처인 것이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유토피아는 현실의 경험적인 환경에서 떠나 있으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곳을 창조하고 상상하는 가상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현실 속에 유토피아로 실현시키기 위해 불완전한 사회에서 일어

나는 갈등, 부조리, 불의를 이상과 평등, 정의로 대체시키고 자체로서 창조하고, 현실화 하며 가상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나타난 창조적인 이상공간의 제시는 현대사회에서 조금이나마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적인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매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가 지향하는 또 다른 이상세계를 만들어 내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진석, 『이상현실. 가상현실. 환상현실 초월에서 포월로』
문학과지성사, 2001
- 마틸데 바티스티니, 조은정 『상징과 비밀 명화를 만나다』, 예경,
2007
- 마이클 설리반, 한정희, 최성은 옮김. 『중국미술사』, 예경, 1999
- 박정욱 『무의식의 마음을 그린 서양미술』, 이가서, 2009
- 이상규. 『무릉도원과 유토피아』, 목회와 신학, 2004.
- 이수용, 김정일. 『중국문학사』. 대한교과서, 1994.
- 이성호 『도연명 전집』, 문자향, 2001.
- 안휘준. 이병환, 『안견과 몽유도원도』, 예경산업사, 1991
- 오주석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미술사가, 1999,
- 월터S 기븐슨 김숙 『중세말의 환상과 엽기 히에로니무스 보스』,
시공사, 2003
-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2002
- 최현덕 『서양에 있어서 유토피아 사상의 역사』. 한일장신대학
교학술지, 1998
- 피에르 레비, 전재연 옮김 『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 궁리출판,
2002

토마스모어 『유토피아』, 서해문집, 2005

허 용 『조맹부의 화계어원도』

학위논문

김정경, 『몽유도원도와 신곡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공간 연구』
학위논문 2006 연세대학교 영산대학원

김종석, 『유토피아니즘에 대한 분석적 고찰』
학위논문 1986 계명대학교 대학원

장경연, 『중국과 한국의 도원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2004 홍익대학교 대학원

김효민, 『생명의 심상공간-무릉도원과 그변주』, 중국어문학연구회
2005

인터넷

네이버 캐스트-티치아노

네이버 백과사전

ABSTRACT

A Study on the Utopian Ideal in the East and the West

- Focused on my work -

Kim, Joo-Hee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an analysis of the utopian world represented in the history of art of the West and the East by comparison with my own works. Utopia, that is, an ideal world, motivates many artists to create their works until now, and as an artist of this age, I also came to work on the utopian world that any body dreams of at least once in one's life in this world of complexity and diversity.

Since I think the essence of artistic expression is to reflect the reality and society through the artist's own feelings and inner experiences, I tried to express the images that human beings crave and dream of, based on the mindset of modern people that longs to escape from the desolate and confusing reality. The motive for my work on the subject of the utopian world called paradise derives from a travel. I cannot forget the

freedom and happiness that I felt for a moment in front of the blue ocean. Starting my work expressing what I felt there and my imagination about an ideal world, the present dissertation attempts to present my research on the works that delved into the subject of the utopian world in the thought of the West and East and the ideal world of an age, focused on my works I dealt with for my MA dissertation in 2012.

As for the method of research, I try to analyze the concepts of utopia in the East and West and their differences through a research on related literature and an analysis of specific works in order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meaning and concept of utopia.

For an analysis of utopian ideal in the East, I examined the Eastern world of utopia as represented in *Peach Blossom Spring* (桃花源記) by Tao Yuanming (365~427) in the period of the Eastern Jin dynasty (317-420) and *Mongyu dowondo* (『몽유도원도』 (夢遊桃源圖)) by Ahn Gyeon (안견(安堅)), and for the utopian world of the West, I studied the idyllic utopia of Arcadia and the spiritual journey of Dante Alighieri (1265~1321); and through these works, I analyzed other works that embodied the subject matter.

And based on this theoretical analysis, this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the images and ways of expression as represented in the works of the author of this dissertation.